



문화제조창은 지난 2018년 지방 최초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9월 7일까지 열리는 '수채: 물을 그리다' 전에서는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이인성, 서동진 등 국내 유명 미술가 34명의 수채화 1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제공)

낮설지 않은 그곳

역동적 공간으로 되살리다

복합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

(3) 청주 문화제조창

언제부터인가 '문단은 공장, 아트팩토리가 되다'라는 말이 낮설지 않다. 급속한 산업화 이후 방치된 폐공장이나 오래된 건물들을 역동적인 문화예술로 되살려 낸 현장들이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청주 문화제조창은 도시재생의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곳이다. 지난 2004년 불꺼진 담배공장을 2011년 공예비엔날레의 주 전시장으로 활용한 후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이 들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국내 최초의 '보이는 수장고'를 내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청주관)이 들어서면서 날개를 달았다. 본관인 공예비엔날레 주전시장은 본관을 중심으로 청주시 한국공예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열린 도서관,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등이 밀집된 매머드 문화발전소(총 12만㎡)로 거듭난 것이다.

2011년 담배공장을 공예비엔날레 주전시장으로 활용
지방 최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개관 수장고 직접 관람
첨단문화산단·도서관 등 입주 도시재생 대표공간으로



취재를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하자 '문화제조창 골목'에서 만나자는 답신이 왔다. 순간, 이곳이 예전에 담배공장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아무리 그래도 외지인의 눈에 골목이 쉽게 떨어지는 의문이 들었지만 기우였다. 주차장에서 나와 문화제조창으로 향하는 입구에 1960대 지어진 50m 높이의 시멘트 골목이 우뚝 세워져 있어 단박에 찾을 수 있었다.

5층 건물인 문화제조창 본관에 들어서자 빛바랜 골목과는 전혀 다른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다. 1층에는 신발, 의류 등 패션 매장과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 등 수십 여 개의 상가가 성업중이었다. 식당만 해도 한식, 중식, 일식, 베트남, 양식, 패스트 푸드 등 16 곳이 입주해 있었다. 취향에 맞춰 즐길 수 있는 식당들과 카페들이 많아서인지 평일 낮시간인데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 오르면 청주 시청 제2 임시청사, 3, 4층은 공예비엔날레의 주전시장이 3,000㎡ 규모의 전시실이 나온다. '2025 공예비엔날레' 개막을 한달 앞둔 탓인지 주전시실과 108~730㎡의 작은 갤러리 등 10개의 전시관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었다. 흥미로운 건, 주전시실에서 진행된 공예비엔날레의 공모전 심사였다.

공모전은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보자기×젓가락 연결 짓기'를 주제로 지난 7월 21일~25일까지 접수한 국내외 작가 작품들을 엄선해 비엔날레 기간에 전시하는 메인 프로그램이다. 지난 1999년 제1회 대회부터 대회 대상작 6000만원을 비롯해 금·은·동 부문의 작품들을 구입해 청주시한국공예관(국립미술관)에 상설 전시한다. 지난해까지 13회의 행사를 치르면서 100여 점의 국내외 작가 작품들을 확보했다.

특히 이들 작품들은 3층 한국 공예관에서 다양한 테마의 전시를 통해 비엔날레 기간이 아니라도 연중 즐길 수 있어 교육의 장 역할도 한다. 4층에는 6개 분야의 공예가들이 입주해 있는 스튜디오가 운영중이며 초·중등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예 아카데미도 진행된다. 5층에는 3만 2000여 권의 책이 비치된 열린 도서관이 꾸며져 있다.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보고 듣는 북큐레이션을 진행하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씩 내려 오면 가공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의 기둥과 벽의 골격들이 6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5층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리



문화제조창은 다양한 문화예술기관들이 밀집된 매머드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제조창 전경.

(사진=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제공)

면 '그 시절' 담뱃빛 보관 창고였던 동부창고에 눈에 띈다. 1960년대 목조트러스와 적벽돌로 지어진 이 곳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근대산업 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현재 7개 동이 남아 있는 동부창고는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마음의 창고' 같은 곳이다. 쿠키, 목공 등 소소한 취미를 나누는 생활문화클래스는 물론 청주잡나무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등의 연습공간, 동아리활동 장소로 쓰이는 시민들의 예술놀이터이다.

1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공간은 뮤지엄 숍이다. 지난 2019년 개관에 맞춰 세계공예도시 청주 브랜딩의 일환으로 단장된 이곳은 공예작가들의 수준높은 작품에서부터 생활자기와 스카프, 가죽 가방, 유리 식기 등 실용 공예품과 문화상품까지 1천100여 종이 판매되고 있다.

문화제조창의 운영을 맡고 있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안승현 문화산업본부장은 "재단은 콘텐츠산업, 공예진흥, 시민예술, 문화도시 등을 큰 축으로 도시 역량과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높이는 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공예비엔날레의 도시답게 청소년 공예학교, 시민대상 도슨트 양성,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지역 공예 생태계와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말했다. 문화제조창의 장소성을 살린 '달빛투어'와 '꿀단지 프로젝트'는 외지인들에게 청주의 매력을 보여주는 관광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제조창이 전국구 명소로 떠오른 데에는 지방 최초의 국립현대미술관(MMCA) 분관을 빼놓을 수 없다. 문화제조창 본관 옆에 자리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과천, 덕수궁, 서울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곳으로, 소장품을 보관하는 비밀의 공간인 수장고

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은은한 조명과 깔끔한 분위기가 감도는 여느 전시장과 달리 비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늘어선 작품들은 낮설게 느껴진다. 철제로 만든 선반 위에 조각 작품들이 나란히 쌓여 있고 바닥 곳곳에도 대형 설치 작품들이 놓여 있다.

일명 '속이 보이는' 청주관의 색깔은 바로 1층 개방형 수장고에서 나온다. 관람객들이 전시장이 아닌 미술관의 수장고에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이다. 보통 외부 환경에 민감한 미술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장고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 빛에 덜 예민한 조각, 설치작품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다. 마치 창고형 마트의 물건처럼 층층히 놓인 작품들이 미술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니키 드 생팔의 '검은 나무', 이불의 '사이보그 W5', 서도호의 '바닥', 백남준의 '데카르트', 장 드 뷔페의 '집 자기는 개' 등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3층은 정부가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미술작품을 대여해주는 '미술은행'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개방형 수장고와 보이는 수장고 두 가지 형태로 운영중이며 미술품의 전문적인 보존 처리, 검사 과정은 '보이는 보존 과학실'에서 공개한다.

문화제조창은 빼어난 건축미를 뽐내는 여타 복합문화공간과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폐산업 유산도 차별화된 콘셉트로 리모델링한다면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매력 100선 '로컬 100'에 이어 청주시의 미래유산 1호로 선정된 게 그 방증이다.

/청주=글 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1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펼쳐진 '2023년 청주공예비엔날레' 2 문화제조창 본관 1층에 자리한 뮤지엄숍. 3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1층 개방 수장고. 4 지난해 통합 청주시 10주년을 기념해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 개최된 '공예의 땅, 우리 함께'.